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0 | JULY-AUGUST 2021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7-8월호 / 통권 290호

발행일 2021년 7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290 | JULY-AUGUST 2021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야고보 서간
전례와 생활	16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표징들 2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4 기도학교 30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20
신앙과 삶	34 소통의 기술
듣다 읽다 보다	38 고전음악을 듣다 44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News & Views	61 후원방법 및 소식



### THE COVER

프랑스 니스에 있는 호텔 르 생 폴(Le Saint Paul) 객실에서 바라본 지중해 풍경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도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박한 사태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만,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인센티브 활용으로 백신 접종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과 8월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작년 이어 올해도 여름휴가를 갈 수 있을지, 아니 가도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여름! 바캉스(Vacances; 복수임에 유의)의 계절입니다.

프랑스어인 바캉스(vacance)의 어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비우는 것’이라는 뜻을 갖는 라틴어 바카치오(vacatio)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란, ‘지금의 나를 얽어매거나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운 곳에 다른 무엇을 채워 넣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톨릭 직장인』 구독자 여러분은 무엇을 채워 넣고 싶으십니까? 책, 음악, 영화, 게임, 이국적인 풍경, 맛있는 음식 등등.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지요? 작년 7/8월호 합본 편집자 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휴가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옆에 머무는 것’이라고 休暇(휴가)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 팬데믹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하여 너무나 쉽게 몸도 마음도 그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게 되는 삶의 조건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를 뜻하는 한자 息(쉬)은 마음 心(심)자와 자기를 나타내는 스스로 自(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성찰해보면 가만히 코로 호흡하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이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의 여름은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여유를 찾고 쉬의 시간을 갖고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쉬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충전되는 휴가이기를 기도해봅니다.

노동신앙연구소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김대건(6): 사제 서품과 입국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다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한 예수회의 중국 대표를 맡고 있었던 고틀랑 신부의 편지에는 김대건 부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 아직 그 편지의 전문이 모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편지를 통해서 김대건의 부제시절과 사제서품을 받았던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다. 고틀랑의 편지에서는 당시 조선신자들의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우리 용감한 조선인들은 그들이 간절하게 원해왔던 고해부터 해야 했습니다. (...) 안

드레아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신학적인 공부를 조금 했을 뿐인데도 놀라우리만큼 예민하게 그들의 생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시작했는데, 거의 미사를 드릴 시간이 되어서야 끝냈습니다.”(『경향잡지』 2001, 8월호)

기해박해 이후 3명의 프랑스 성직자를 잃고, 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들은 김대건 부제부터 시작하여, 그 부제의 통역으로 밤새 고해성사로 이어졌다. 성사는 새벽미사를 드릴 시



상해 오송항\_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 탁희성 비오 작 | 오문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

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고틀랑 신부의 배려로 조선 신자들은 성사를 받고, 상해에 도착하여 배를 수리하면서 8월 17일에 김가향 교우촌에서 김대건 부제의 사제서품을, 8월 24일에 왕당[橫堂]의 신학교에서 김 신부의 첫미사에 함께 참례하였다. 그리고 다시 일

주일 후, 주일이었던 8월 31일에 라파엘호를 출범시켰다. 김대건 신부가 타고 온 배가 처음부터 라파엘호는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선교사들은 모두 조선인들이 타고 온 나룻배를 보고, ‘어떻게 바다를 건너올 생각을 했는지, 조선인들의 신앙심은 정말 놀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김대건(6): 사제 서품과 입국

랍다’는 똑같은 고백을 했다.

페레올 주교가 처음 그 배를 보았을 때의 심정을 들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 천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조선에서 초라한 배를 처음 보았을 때에 저는 무척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무토막을 타고 어떻게 100리외(lieue, 약 400km) 이상의 바다를 건너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도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는 조선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 감탄할만 합니다.”(1845. 8. 28)

이러한 내용은 함께 조선으로 출발했던 다블뤼 신부에게서도 보이는데, 그들은 다른 중국배를 구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작은 배를 개량하여 ‘프릿깃 함’이라 붙이면서, 길의 수호천사 ‘라파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바로 여행자와 치유의 수호천사인 라파엘 천사를 그 배의 후보(主保)로 모셨기 때문이다.

라파엘호는 8월 31일 상해에서 출발하여 9월 28일 제주도 인근 섬에 표착했다가, 10월 12일 강경 부근의 한 포구에 도착하였다. 항해 동안의 어려움은 강경에서 보낸 페레올 주교의 10월 29일자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키가 부러지고 돛이 찢겨 나가면서, 배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주위의 배에 조난 신호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구조해주지 않았다. 부러진 돛대를 다시 세우고, 부서진 키를 새로 만들어 달면서 간신히 제주도 인근 섬에 표착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만일 한양으로 진입했다더라면, 이미 알려진 그 배가 바로 발각되어 모두 체포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부터 김대건은 마지막 사제생활을 펼치게 되었다. 먼저 부제 때 마련해두었던 주교와 사제의 거처에 선교사들을 안내하고, 페레올 주교의 명에 따라 성무활동과 선교사의 입국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사제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서울에서 리브와 대표신부에게 보낸 편지에는 ‘라파엘호’의 항해로 조선

에 잘 들어와서, 두 분 선교사가 조선말을 잘 배우고 있으며, 자신은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를 영입하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곧 김대건의 첫 임무는 성무활동 이외에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올 길을 개척하는 일이었다.

13개월간의 짧은 사제의 삶 동안, 김대건의 성무활동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마포구 신수동 일대, 서빙고 지역, 서대문구, 중구 등지에서 성사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남아 있다. 튼튼한 체격에 키가 컸다고 전하며, 품격 있는 얼굴에 성사 집전에 엄격하였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1885년 시복재판 때에 72세 노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김대건 신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노(모방) 신부께서 신품공부를 시키시려고 중국에 보내셨는데, 몇 해후 신품에 올라 조선으로 돌아와 1년 동안에 경향(京鄕)으로 전교하셨다. 죄인이 성사 받을 때 한번 뵈옵고, 도리를 강론하여 모든 교우를 가르치심이 지극히 열정적이고, 성사도 부지런

히 주신지라.”

한국교회의 첫 사제로서 새 신부의 성사집전은 모든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김대건은 무엇보다 부제시절 수개월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도 찾아뵙지 못한 고 우르솔라 어머니를 사제가 되어서 만나볼 수 있었다. 너무나 짧은 사제생활 동안 그 둘의 재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언이 남아 있다.

“죄인이 김 신부께 첫 성사를 양지(陽智) 터골에서 받았고, 병오년(1846)에 신부가 응이(=경기 용인 은이) 상똥이 모친댁에 계시다가 ‘곧 길을 나서겠다’ 하시니 모친이 부활참례나 본 후까지 기다리기를 청하매 부활참례 보시고 1부 참례(부활대축일 그 다음날)날 떠나 서울 가서 배 타고 시골 가시다가 잡혀 서울로 올라오신지라. 옥에 계실 때 모든 교우에게 편지 한 장을 써 보냈더니 죄인도 보았삽고...”(1884년 임 루치아의 증언)

고 우르솔라 어머니와 함께 부활을 지냈던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김대건(6): 사제 서품과 입국

임 루치아는 당시 김대건이 부활을 지낸 다음날 출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교우들 보아라”로 시작되는 김대건의 마지막 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추정하건대 봄 판공시기에 김대건 신부는 여러 교우촌에 성사를 주면서, 부활이 임박한 시기에 어머니가 계시던 은이 마을 윗동네 교우촌에 머물렀던 것 같다. 부활도 되기 전에 주교님의 명을 받들고자 선교사들이 들어올 길을 개척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려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탁으로 부활절을 그곳 교우촌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서해안으로 갔고, 백령도 인근 순위도에서 체포되었다.

김대건 신부와 함께 입국했던 다블뤼 신부는 조선말을 배우면서 교우촌에서 첫 부활을 지냈는데, 당시 교우촌의 부활절을 묘사하는 글이 남아 있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할 때면, 특히 주일에는 능력껏 각자의 집에 작은 기도실을 마련합니다. 비단이나 꽃무늬 형겅 한 조각을 벽에 치고 그 위에 십자가, 성패, 성화 등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매달고, 신부가 교우촌 방문 시, 강복 받은 초에 불을 붙여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차려 놓은 곳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 저도 성주간 동안 대략 그러한 방식으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무덤제머(수난감실)도 없었고, 저는 상황에 맞게 십자가 경배 예절을 했고, 성토요일 전례는 모든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자 길이의 아름다운 부활초를 준비시키고, 향 덩어리가 없어서 제가 나무의 씨앗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모든 예식을 잘 치렀습니다. (...) 아름다운 부활초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름이 지나니 초가 다 닳아 살아있는 이들의 지상에서 사라지고 마니, 제게는 더 이상 부활초가 없습니다. (...) 아무리 전례법규상 부활초를 요구해도 저는 그 전례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니면 1847년 성토요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1846. 8. 27 다블뤼 신부가 부

모에게 보낸 편지)

이처럼 당시 교우촌은 경당이 따로 있지 않았고, 교우의 집을 빌려 기도실과 경당을 만들고, 부활초도 보름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릴 정도로 가난했다. 그래서 다블뤼 신부는 전례법에 따라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해 1847년 부활초를 다시 축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소박하게 김대건 신

부와 어머니 고 우르솔라는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활전례를 거행했을 것이다. 김대건은 후에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페레올 주교님께 보내며, 어머니를 부탁드리는 인사로 마무리한다. “제 어머니 우르솔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묵상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혹은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내가 하는 일에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 야고보 서간

# 믿음을 실천한 사람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1.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이는 두 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단에서는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요한의 형제는 큰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중심 인물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비교하여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다고 하는 것은 사도단 내에서 지위나 영향력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형인 마태오는 로마정권에 협력하는 세리였습니다. 마태오와 야고보는 같은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야고보와 마태오를 둘 다 같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야고보 사도는 보이지 않고 빛나지도 않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보통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야고보 서간의 저자와 수신인

야고보라는 사람에 의해 저술되었는데(1장 1절), 그는 단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외에 더 이상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흔히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작은 야고보보다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서간은 히브리 문학에도 정통하고 희랍어에도 능숙한 무명의 유다계 그리스도 신자의 저술이라고 성경 학계에서는 주장합니다.

이 서간은 서두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수신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유다계 그리스도인과 외교계 그리스도인 전체를 수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가톨릭 서간

신약성서에는 바오로의 서간에 뒤이어 일곱

편의 서간이 나오는데, 4세기 초엽부터 이를 ‘가톨릭 서간’ 혹은 ‘공동 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가톨릭이라는 의미가 ‘보편적’이라는 뜻인만큼 이 서간들의 성격을 시사합니다. 즉 이 서간들은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과는 달리 수신인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정한 공동체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 전부에게 보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 4. 야고보 서간의 주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간은 무엇보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학적인 고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집중한 현실적인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야고 2,26)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고보 서간은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 5. 야고보 서간의 내용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일 것과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구원받으자 한다면 선행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몇 가지 진리만을 믿으면서 자기의 물질적 이익과 본능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자기 행실과 관계없이 반드시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삶 자체 즉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실이 따르고 행동하는 믿음이며 실생활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가 되는 것도 사람의 공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은 사람에게 새 생명의 원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게 만드는 요소이며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자연적 생명의 씨앗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라면, 그 씨앗과 뿌리가 나무

로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생활에 옮겨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실행에 옮겨야 할 할 교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 1) 시련과 어려운 생활 중에 인내를 다 하라는 훈계(1,2-12; 5,7-11)
- 2) 혀를 잘 쓰라는 훈계 (3,1-12)
- 3) 권력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경고(2,1-13; 5,1-6)
- 4)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며 그리스도교적 지혜를 터득하라는 훈계 (3,13-4,17)

### 6. 야고보 서간의 특별성

이 서간은 병자에 대한 도우에 관해 언급한 유일한 신약성서입니다. 즉 병든 신자들의 영적 유익뿐 아니라 육체적 유익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겉으로 나타나는 표지임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병자성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5,14-15) 이어서 저자는 죄의 고백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성사로서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서 서로 자기 잘못을 공적으로 고백하여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

## 한달 동안 성경읽기

<input type="checkbox"/> 1주간	<input type="checkbox"/> 2주간	<input type="checkbox"/> 3주간	<input type="checkbox"/> 4주간
야고 1, 1~1, 27	야고 2, 1~3, 18	야고 4, 1~4, 17	야고 5, 1~5, 20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 야고보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야고보가 누구에게 쓴 서간입니까? (1,1)
- ② 서간에서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3)
- ③ 무엇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청하라고 합니까? (1,5)
- ④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 ) 빨리 하되, ( ) 더디 하고 ( ) 더디 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1,19-20)
- ⑤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에 따라 ( ) 하신 지고한 법을 이행하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2,8)
- ⑥ 믿음은 있으나 실천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2,17)
- ⑦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2)
- ⑧ 이와 마찬가지로 ( )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 )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3,5)
- ⑨ 우리가 청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 ⑩ 여러분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 ) 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 ) 를 부르십시오. (5,13)

##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표징들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찾고,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에 점점 한계와 피로를 느낍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쉽게 지나가 버리고 잊혀지는 말과 장면들이 갈수록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속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은 거룩함을 지닌 교회의 표징들은 급변하는 현실에 저항하면서도 한편으로 초월을 향한 문을 열어놓습니다.

### 성사적 존재인 인간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육체와 정신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거꾸로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유기적이고 일체적인 구조 속에 사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언어나 몸짓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 상호 간의 통교(communication)도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친밀함의 악수나 위로의 포옹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선물을 통해서 호의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짓이나, 물건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몸짓으로 드러내는 존재, 즉 ‘성사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사적 특성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역사 전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전례 안에서 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전례를 통한 소통

전례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환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교환을 성사적으로 드러내는 전례 예식은 하느님과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실현하는 전례는 하나의 소통이 됩니다. 이러한 소통은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들의 감각을 기반으로 예식 안에서 표현됩니다. 곧 말, 몸짓, 음악, 노래, 건축, 침묵, 옷, 색깔, 이미지, 빛, 움직임, 향기, 맛 등 우리의 모든 감각과 연관되어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 전례는 이러한 다양한 전례적 표징들과 행위들로 구성된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표징과 상징

표징은 말과 그림, 동작 그리고 그 밖에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지시 또는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마치 한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성격과 심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뚜렷한 표징은 표현하려는 대상의 본질과 깊이와 존재를 드러내 줍니다.

표징은 상징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상징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심볼룸(symbolum)은 그리스어 명사 심볼론(σύμβολον)에서 유래합니다. 이 명사는 ‘함께 두다’, ‘함께 맞추어 보다’라는 의미의 심발레인(συμβάλλειν)이라는 동사에 근원을 둡니다. 고전적 의미에 따르면 상징이라는 말의 뜻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한쪽씩 가지도록 둘로 잘린 물건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사물에서 나누어진 두 개의 조각이나 사물을 서로 맞추어 확인하거나 식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어원에서 유래하는 상징

이란 말마디는 오늘날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이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을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 전례가 지니는 표징적 특성

인간이 지닌 영적인 특성은 육체를 매개로 표현되고, 육체적인 행위는 전례 거행 안에서 영적인 것이 됩니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전례현장 7항)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전례 안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일례로 후각은 향을, 미각은 빵과 포도주의 축성된 제물을, 촉각은 세례의 물을, 시각은 색과 형식을, 청각은 말씀과 성가를 감지합니다. 이처럼 전례의 감각적 특성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있는 인간 전체와 관련을 맺습니다.

### 하느님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하느님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수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적으로, 더 이상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인간 예수 안에서 하느님 자신이 육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요한 1,14)라고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표징이십니다. 하느님의 살아있는 표징인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해 육체가 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례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육화에 그 신학적 기반을 둡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공동체인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 현존하시면서, 교회가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지속적인 표징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부활 이후 그리스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제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 성화가 실현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우리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문

믿는 이들은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전례 거행에 참여합니다. 수동적으로 말없이 전례에 참여하거나 구경하는 것은 전례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한 표징들을 통해 더욱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함께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면서, 십자성호를 긋거나 깊은 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자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표징은 실재를 드러내고 감추어진 비밀을 밝혀 줍니다. 물, 빵과 포도주, 그림, 말씀, 행위, 노래, 침묵과 같은 전례 안에서의 다양한 표징들은 우리를 하느님의 집으로 이끄는 하나의 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표징들을 통해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요한 10,7)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표징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하지 않는 문입니다. 전례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된 이 거룩한 보물들을 더 자주 찾아보고 접해 보려고 마음을 열고 노력한다면 하느님의 집에 이르는 비밀의 문도 우리를 향해 활짝 문을 열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가밀로 데 렐리스

St. Camillus de Lellis (축일: 7월 14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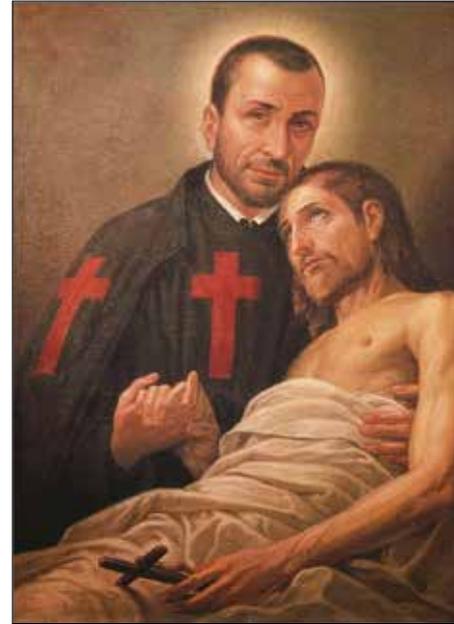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리는 뉴스에서는 인도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생지옥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였고,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산소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자를 자기 몸처럼 아끼려는 의료진들이 더 절실하고 소중한 시절이며, 그들이 맞서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흘리는 피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잊지 말아야 하는 이때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지자 우리의 관심은 인류의 전염병 역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6세기 유럽에 퍼진 페스트(흑사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가 다시 서점가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40년대의 이야기이지만, 흑사병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는 판느루(Paneloux) 신부와 그 주변 인물들이 전인류적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재난소설의 하나입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마땅할까요?

여기에 실제로 흑사병을 마주한 한 이탈리아 성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밀로 데 렐리스’(Camillus de Lellis)입니다. 이 성인이 지닌 이름인 ‘가밀로’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하느님의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성인의 전구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 ‘가밀로/카밀루스’(Camillus)라는 이름은 원래가 로마시대의 성(姓, family name)에 해당됩니다. 이의 여성형은 ‘가밀라/카밀라’(Camilla)라고 합니다. 이 말의 기원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력한 가설로는 로마시대에 ‘사제를 돕는 조수/보조’라는 뜻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밀



로’라는 이름 안에는 이미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런 영적 특징이 한 가족의 이름인 성(姓, family name)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가밀로 성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밀라(Camilla)였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성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기묘하게도 나이가 50인데, 미사참례 중에 산통을 느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때 마굿간으로 쫓던 방에서 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가밀라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 프란치스

코의 탄생을 따라하기 위해 그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밀라는 가밀로 성인이 13세가 되던 해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18세가 되던 해부터 가밀로 성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군복무에 몸을 담게 됩니다. 폭력적인 삶을 살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으며, 도박과 노름을 청소년 시절부터 동경하였습니다. 말다툼에 자주 휩싸였고, 급기야는 결투를 신청하여 싸우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하루는 도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만프레도니아(Manfredonia)의 성 도미니코 성당 앞을 지나갈 때에 애금을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카푸친 수도원의 일꾼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산 조반니 로톤도의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의 수도원장인 안젤로 신부님은 가밀로에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하느님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밀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회개의 결심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결심을 한 이후에는 어떤 소죄도 고의로 범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도 카푸친 프란치스칸이 되기 위해 두 번이나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나, 자신의 발에 있는 궤양같은 상처를 자꾸 수도복이 자극하였기 때문에 프란치스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산 자코모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병원의 환우들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런 이상을 품은 남자 수도자들의 수도회를 창설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밀로회(Ordo Sancti

Camilli, O.S.C.)가 되었습니다.

당시 페스트가 유행하던 때였기에 아무도 선뜻 환우들을 돌보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환우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었거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범죄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관심 속에서 환우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시신을 기다릴 틈도 없이 침대를 비워줘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1584년에 사제품을 받은 가밀로는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로부터 새로운 수도회 창설을 인준받았고, 이듬해에 수도복 위에 적십자를 새겨 넣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랑의 불,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해사제는 필립보 네리 성인이었는데, 필립보 성인이 환우들을 돌보는 수도회 창설을 권유했습니다.

환우들을 돌보느라 다른 겨를이 없을 무렵, 한번은 어느 추기경이 병원에 가밀로 성인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의 동료 수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에 가밀로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추기경님께 말씀을 잘 전해주세요. 추기경님께서 인내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어 바쁘기 때문입니다.”

환우들을 향한 사랑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안에서 돌보는 듯한 사랑으로 동일시되었습니다. 가밀로 성인은 동료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픈 이들을 가장 최대한의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섬기십시오. 자신의 유일한 아픈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처럼 가난한 이를 돌보면서 섬기십시오.”

가밀로라는 이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돕고 돌보는데 헌신적이었던 이 성인의 삶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마태 25,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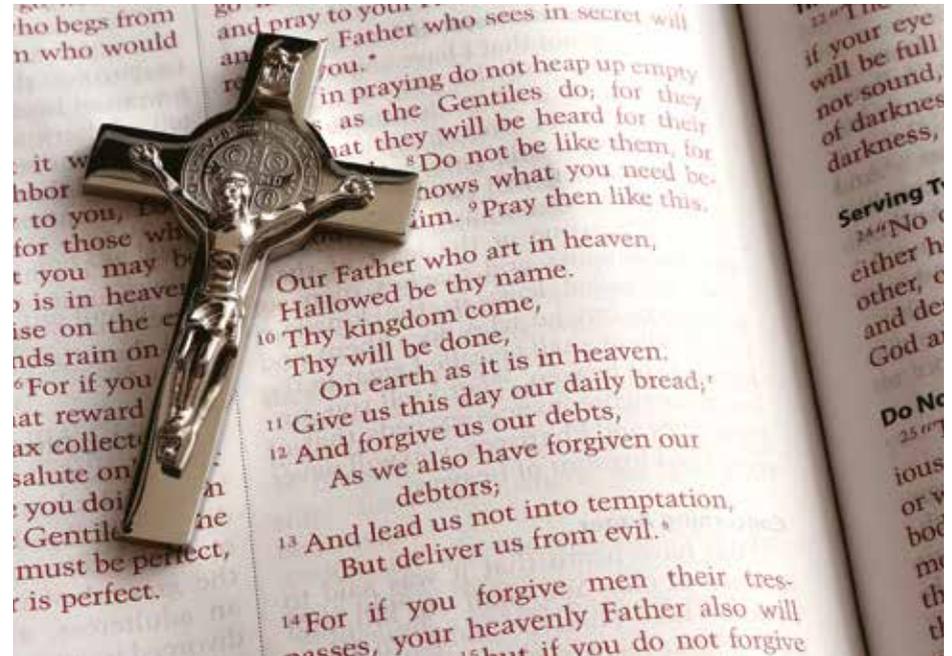
## 기도 학교

# 전례기도와 성무일도

차동욱 시몬 신부\_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지난 호에서 기도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염경(念經)기도와 묵상(默想) 기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사적(私的)기도와 전례(典禮)기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적기도란 자유로이 하는 개인기도 및 여러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전례적 규정을 가지는 전례기도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던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나 기도서의 여러 가지 기도를 개인이나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적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교회의 공적인 전례행위가 아니라 신심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느님과 친밀함을 기본으로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와 찬미 그리고 청원의 모습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형태가 개인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 치프리아나가 그의 글, '주님의 기도문' 8장(De Dominica Oratione, 8)에서 언급한 다음의 말들은 개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적(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전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인은 참된 기도가 가지는 공동체적 특성을 강



조합니다. 성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당신 안으로 불러 모으듯이 각자가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참여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헌장 12항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언급합니다. 이 소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홀로 기도드리는 순간일지라도 그의 기도는 결코 개인적인 기도만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모든 이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

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개인의 고유성을 모두 상실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모든 은총에 감사를 드리거나 또한 받기를 원하는 개인적 선물을 하느님께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사와 청원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는 순간 이 기도는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와 하나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대표합니다.

다음으로 전례기도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례(典禮)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leiturgia'는 '공적 의무', 또는 '공적인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례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전례 기도는 이러한 전례의 성격을 간직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성직자의 주관 하에, 교황청에서 인준한 전례서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 및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례기도는 전례서에 있는 기도들이며, 성찬례(미사), 성사, 시간 전례(성무일도), 준성사의 축복 등을 말합니다. 전례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심행위와 달리 교회의 성사적 예배이기 때문에 전례 기도에서도 개인 기도와는 달리 규정의 제재를 받습니다. **교회의 공적기도인 전례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주례자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례 기도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주례자로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봉헌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례기도 가운데서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가 시간에 따라 바치는 기도인

성무일도가 있습니다. 성무일도는 라틴어로 'Officium Divinum(공적 의무)', 'Liturgia Horarum(시간 전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말로 성무일도(聖務日禱)라는 말이 대표적이지만 시간전례(時間典禮), 성무일과(聖務日課)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매일 바치는 공적 의무라는 뜻이 담겨있고, 시간에 따라 바치는 전례 기도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성무일도에 대한 설명이 담긴 중요한 두 문헌이 있는데, 하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4장의 성무일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무일도의 의미와 방법 준수 규정 등, 핵심적인 지침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4책으로 나뉘어져 있는 성무일도서의 1권에 나와 있는 '성무일도 총 지침'입니다. 여기에 성무일도 각 부분의 의미와 기도의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교황 바오로 6세는 '성무일도에 관한 교황령'을 공포하시면서 성무일도의 의미를 '경신례의 절정인 미사성체의 부요함을 인간생활의 모든 시간으로 흘러보내고 퍼져나가게 하는 필수적인 보조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성무일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치는 기도이며, 또한 그리스도께 바치는 찬미와 청원의 기도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의회 문헌 역시 성무일도를 두고 교회가 감사의 성찬례뿐 아니라, 특히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고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성무일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로서, 일상에서 미사의 은총이 연장되는 순간이자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전 세계의 기도입니다.

성무일도의 유래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도로 성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관습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도 지속되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나 수도

회의 발전과 더불어 공적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간직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아침 9시(2장 15절)에 모였다는 기록이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기록(3장 1절),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는 기록(10장 9절) 등이 나와 있습니다. 교부인 히폴리투스가 지은 「사도전승」에서는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전통이 3세기 초부터 주교 아래 성직자와 교중이 참여하여 교회의 기도로서 행하여 졌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아침기도와 저녁기도가 전례적인 형태가 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성무일도에는 총 7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무일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외에 세 번의 낮 기도가 담겨있고, 독서기도와 끝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이 트기 전에 따로 바치는 기도가 독서기도였는데, 오늘날엔 어떤 시간에 바치더라도 관찮게 여겨집니다. 끝기도는 밤늦게 바치는 시간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쳐지는 성무일도는 그래서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지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사가 그리스도인의 하느님을 향한 흡송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화의 시간인 것처럼, 성무일도는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이 거룩하여지도록 교회가 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간직한 성무일도이기에 성무일도는 그 기도 안에 담긴 말처럼 교회에 의무로 맡겨진 기도입니다. 교회법 276조나 1174조는 성무일도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제나 수도자에게 의무로서 맡겨져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례자로 바치는 이 기도가 확실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

나 교회법은 같은 1174조 2항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전례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85항도 성무일도를 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임무를 실행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최고의 영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전례기도로서의 의미가 깊은 성무일도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극 권고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인 왕직, 예언직, 사제직에 참여하게 된 신자들이 특별히 사제직 참여의 실천으로서 성무일도를 바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무일도를 바침으로써 미사와 더불어 온 인류가 하느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드리고자하는 이 거룩한 찬송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



##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20

### 존엄한 생의 말기와 적절한 돌봄 2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 안락사도 아닌, 치료 집착도 아닌

말기(임종) 환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 특별히 의학적 돌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인간 생명은 ‘근본적 가치’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체로서 하나 하나가 유일무이하며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이고 그러한 인격체는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거나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언젠가 죽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는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환자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의료 행위를 고집하면서 임종 환자의 고통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 상황은 말기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안락사’이고 후자는 ‘치료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즉, 적절한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안락사’와 ‘치료 집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통상적(ordinary)/예외적(extraordinary) 수단

그렇다면 안락사와 치료 집착이 아닌 적절한 돌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

까요? 가톨릭 교회는 인간이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체 절단’과 같은 새로운 의학 기술이 등장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취도 없이 그러한 절단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이냐시오는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마취도 없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저런 ‘극심한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지 묻게 했으며, 많은 윤리 신학자들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부담을 주는 치료법을 ‘예외적 수단’이라고 부르고, 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있는 수단을 ‘통상적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통상적 수단을 사용할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 수단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1957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이성과 그리스도교 윤리는, 인간이 중병에 있을 때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과 장소와 시기와 문화에 따른) 통상적 수단, 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예외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단에 대한 것 외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①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예외적 수단의 구분은 시간이 지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그 판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공호흡기”입니다. 1950년대의 “인공호흡기”는 새롭게 등장한 소생술(rianimation)의 일환으로 예외적인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어렵지 않게 빈번히 사용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균

형적/불균형적 수단이라는 용어를 도입합니다.

### 균형적(proportionate)/불균형적(disproportionate) 수단

1980년 5월 5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안락사 선언’이라는 문헌을 발표하면서, 말기 환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알려 줍니다. 특별히 이 문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균형적/불균형적 수단이라는 용어와 구분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윤리학자들은 ‘예외적’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 대답해 왔다. 그러나 용어의 모호함과 치료법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 언제나 유효한 이 대답이 오늘날에는 어쩌면 덜 명료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균형적’ 수단과 ‘불균형적’ 수단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각각의 경우에 환자의 상태와 그의 신체적·도덕적 힘을 고려하며 치료법의 유형, 거기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위험의 정도, 필요한 비용과 적용 가능성을 기대하는 결과와 비교하여 수단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안락사 선언, IV)

단순히 말하자면,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과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를 비교하여 균형적인지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이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락사 선언」이 언급하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 치료법의 유형과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 위험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그 치료법이 가져다 줄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임종이 가까

워 온 환자에게 전신 마취가 필요한 대수술을 하여 수명을 하루나 이틀 연장한다면 그러한 수술은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톨릭교회교리서』 2278항을 다시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기대하는 결과에 비하여 짐스럽고 위험하며, 예외적이고 불균형적인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치료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죽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짐스럽고 위험한 예외적 수단, 혹은 불균형적 수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중요한 도덕적(용서, 화해 등) 혹은 종교적(고해 성사, 병자 성사 등)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과 화해를 해야 하는 아버지라면, 단 며칠이라도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큰 부담이 되는 불균형적인 치료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말기 환자의 적절한 돌봄을 위한 의료 행위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기본적 돌봄, 혹은 정상적 간호(normal car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환자의 존엄한 생의 말기를 보장하는 전인적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

① 교황 비오 12세, “그레고리오 멘델 유전학 연구소”가 주최한 의사, 과학자들의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 담화, 1957.11.24.  
(재인용: 정재우, 『생명 보존 수단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가톨릭 신학의 관점』, 군나 두트게-신동일 편,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존엄성』, 세창출판사, 2016, 136쪽).

## 소통의 기술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최안토니오는 교중 미사 중 신부님 강론 말씀인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 18,22)”는 구절을 들으면서 얼마전 김베드로가 자신에게 상처 준 말이 떠올랐다. 최안토니오가 본당 사목관련 제안을 하는 도중에 김베드로가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하며 자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 했다. 그 순간 최안토니오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기까지 하였다.

최안토니오는 상처 받았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속 앓이를 하다가 김베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생각이 짧았을 수는 있었겠지만,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끼어든 형제님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느닷없는 항의 전화를 받은 김베드로는 내심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은근히 화가 났다. 왜냐하면 평소 역지사지를 인생 좌우명으로 삼아 나를 올바른 말만 하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지적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사과의 말을 건네고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짜잔하게 시리, 뭘 그런 걸 가지고 전화까지...”

### Question

무심코 내뱉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객관성을 강조하며 소통이라고 포장한 적은 없는지 나누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마태오 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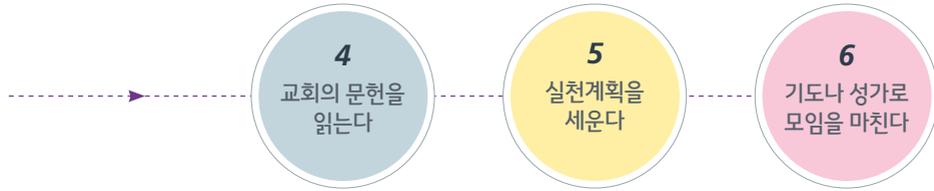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남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후, 아집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거나 사과하기를 주저했던 적은 없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상 사회적이며, 하느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1베드 2,5-10 참조) 또 한 몸으로 결합되기를(1코린 12,12 참조) 바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 사도직은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 공동체는 물론 공동체 사도직의 특성을 지닌 본당 사목구와 교구에서 그리고 스스로 결성한 임의 단체에서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

[공의회 문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18항]

현명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참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이성을 준비시키는 덕이다. “영리한 이는 제 발걸음을 살핀다”(잠언 14,15).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1베드 4,7).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현명은 “올바른 행동 규범”이라고 말한다. 현명은 주저나 공포, 은폐나 위선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현명은 ‘덕의 마부(馬夫)’(auriga virtutum)라고 불린다. 곧 현명은 다른 덕들에게 규율과 척도를 일러 줌으로써 그것들을 이끈다. 양심의 판단을 직접 인도하는 것은 현명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판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규제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06항]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Cornerstone



비둘기 성체합(Eucharistic Dove: Early 13th Century, Limoges(in France), Walters Art Museum)

#### 성합(聖盒, ciborium)과 소성합(小聖盒, pyxis, pyx)

성합은 감실 안에 성체를 보관하거나 사제가 환자에게 성체를 영해주기 위해 성체를 모셔갈 때 쓰는 전례 용구로 기본 형태는 성작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원뿔형인 성작보다는 그릇의 형태가 더 둥글고 위에 작은 십자가가 부착된 뚜껑이 달려 있다. 성반과 같이 평평하고 다리나 받침대가 없이 뚜껑이 달린 작은 상자 형태의 성합을 ‘pyxis’라 하고, 성작처럼 받침대와 대가 있는 동근구 형태의 성합을 ‘ciborium’이라고 한다.

성합의 형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자들이 받아 모실 성체를 담은 기능적 용도에 중점을 두어 단순한 형태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지며, 역시 성작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그릇’으로서 성체가 닿는 면은 도금해야 하고 축성하여야 한다. 또한, 축성된 성체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미사를 집전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각 성당의 감실 안에 들어있다.

성합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사용된 커다란 잔에서 유래한 것으로 초대 교회 시대에는 성체에 대한 경외심이 지나쳐 성찬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마다 성합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이는 병자를 위한 노자성체를 곧바로 행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성합은 조그마했으며 주로 병자들을 위한 제병을 넣기 위해 사용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영성체 횡수가 잦아지자 많은 경우 뚜껑이 달린 성작과 거의 흡사한 큰 성합이 필요하였다. 오늘날 성체 분배를 돕는 성체 분배자들과 더불어 더욱 납작한 성합과 잔 모양의 용기 그리고 접시와 같이 여러 개를 포개어 보관하는 성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작은 성합들이 널리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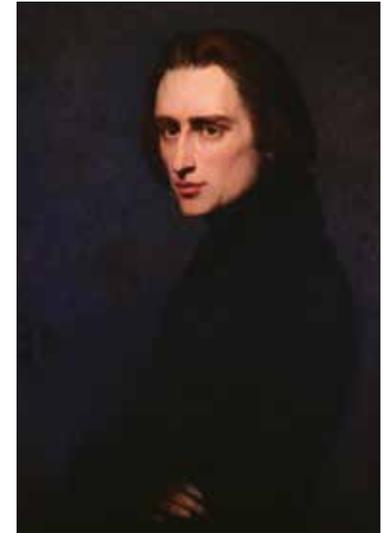
소성합은 보통 손목시계 모양의 작은 용기로 병자들에게 사적으로 성체를 모셔 갈 때 사용된다. 성체를 담은 모든 용기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성합이라 불릴 수 있다. 감실(Tabernacle)은 때로 성체를 보관하기 위한 이동식의 작은 금속 용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병자들에게 성체를 모셔 갈 때 이 용기가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Tabernacle은 Pyx과 동의어이다.

## 고전 음악을 듣다

### 프란츠 리스트 - 고독 속에서의 신의 은총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리스트를 베토벤의 적자(適子)라고 하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나 판이한 음악을 두고 ‘무슨 소리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사실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모두 베토벤의 아이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베토벤은 낭만파의 음악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음악학자 중에는 베토벤의 영웅교향곡부터 낭만주의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리스트는 파리에서 열린 파가니니의 자선 음악회에서 그의 기교에 충격을 받고 ‘나도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베토벤을 존경하여 베토벤 동상 건립모금을 주도하고,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피아노로 편곡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아마 화려한 기교의 독주 연주회를 ‘리사이틀’이라 부르는 것이 리스트로부터 시작되고, 광적인 팬 ‘리스트마니아’가 생겨나 지체높은 귀족부인들조차 리스트의 머물러나 장갑 한쪽을 가지고 다두고 그 찢어져버린 조각을 가슴에 품어 간직할 정도였다는 면만 우리에게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리스트의 절반만 본 것이다. 리스트 초기의 화려한 기교적 음악과 달리, 특히 만년의 음악은 깊은 정신성을 지닌 곡들과 종교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초기의 화려한 음악에도 사실 그 내면에는 베토벤의 정신성이 살아있다. 리스트의 신부복 차림의 초상화를 살펴보고, 그가 만년에 가톨릭 사제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50이 넘는 지긋한 나이에 사제서품을 받느냐고 의문을 품겠지만, 지금의 신부 서품 제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의 새로운 제도이고, 과거에는 사제에게도 등급이 있어서 모든 성사를 다 줄 수 있는 지금의 신부와 달



프란츠 리스트, Franz Liszt (1811 - 1886)

리 성사의 일부만 허용되는 사제도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수사와도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성사를 전혀 줄 수 없는 수사와도 다르다.

리스트가 사제서품을 받은 직접적인 계기는 리스트의 50세 생일에 예정된 카롤리네 자인-비트켄슈타인 공작부인과의 결혼식이 무산되면서였다. 공작부인은 폴란드와 러시아에 걸친 대영토(마치 작은 나라를 연상시킬 정도)를 가진 대지주의 무남독녀였고, 남편 공작은 몰락해가는 집안이었기에, 서로 귀족지위와 부를 노리는 정략결혼을 하였다. 아버지의 강요로 공작부인이 되었으나, 결국 딸 하나를 낳고 별거에 들어갔다. 아버지 사후 대농장의 경영에 여념이 없던 공작부인은 1847년 리스트가 순회연주의 마지막 코스로 들렀던 키에프에서 그의 연주에 감동받아 익명의 기부를 하였고, 리스트는 거액의 기부자가 누군지 호기심을 갖게 되어 결국 공작부인임을 알아내었다. 이를 계기로 리스트는 공작부인 딸의 생일에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머물다가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 모두가 가톨릭이었기에 결혼을 위해서 공작부인은 혼인무효소송(강압에 의한 결혼)을 가톨릭 교회에 제기하였다. 물론 리스트는 그 유명한 마리 다구 백작부인과의 결혼없는 동거로 이미 자녀가 세 명이나 있었으나 헤어진 상태였

고, 결혼 그 자체는 없었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소송은 1848년 시작되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은 로마 교황청이 1861년 혼인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나, 영지가 마치 한 나라의 영토와 맞먹을 정도였기에 국제적인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공작부인의 영지는 원래 폴란드 영토였다가 러시아로 귀속된 영토였기에 이미 러시아는 공작부인이 비러시아인 리스트와 결혼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었던 차였고, 공작부인의 외동딸이 프랑스 외교관과 사랑에 빠지자 프랑스도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로마 교황청도 외교적인 고려를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혼인무효를 허용하였다. 1861년 10월 22일로 혼인성사를 거행하기로 정하고 로마에 도착한 마지막 순간의 혼인공지기간에, 공작부인의 외동딸(그 사이 러시아 귀족과 결혼)이 리스트와 어머니의 혼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리스트는 사제서품을 받았고, 공작부인은 수녀원에 조그만 방을 얻어 기도생활로 지내다가 1866년 리스트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받고 애통해 하다가 7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세기의 사랑’은 막을 내렸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곡이 있다. 리스트가 공작부인과 만나 사랑에 빠졌던 1848년 작곡한 ‘고독 속에서의 신의 은총(Benediction de Dieu dans la Solitude)’(S.173 n.3)으로, 알폰소 라 마르틴느의 시를 읽고 영감을 받아 작곡한 ‘시적이고 종교적인 하모니(Hamonies Poetiques et Religieuses)’의 10곡 중 세 번째 곡이다. 흔히 리스트의 1839년부터 1847년까지를 ‘비르투오조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화려한 기교로 ‘리사이틀’ 매진을 기록하며 유럽을 뒤흔들었지만 실은 떠돌이 연주생활이었다. 1848년 키에프에서 공작부인을 만난 후 리스트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할 결심을 하고 이를 신의 은총으로 받아들였다. 역설적으로 깊은 고독 속에 있는 자만이 신의 은총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작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6곡의 ‘위안(Consolation)’도 그 제목 ‘위안’을 생뜨 뵈브의 시집에서 그 제목만을 빌려왔을 뿐, 3번

FRANZ LISZT  
Piano Sonata In B Minor;  
Bénédiction De Dieu Dans La Solitude; Waldesrauschen;  
Gnomesreigen; Vallée D'Obermann  
Claudio Arrau  
Release Date: April 23, 2001  
Duration: 01:14:30  
Label: Decca  
UPC: 0002894647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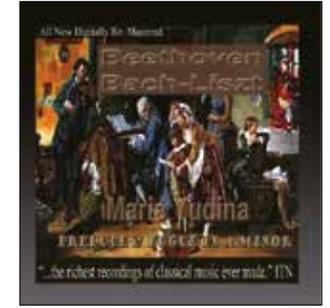
째 곡은 동일하게 ‘고독속에서의 신의 은총’(S.173 n.3)이다. 자신과 공작부인의 힘든 사랑을 위로하기에 우리는 ‘시적인 팽세(명상곡)’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리스트 비르투오조 시대를 청산하고 바이마르의 궁정악장직을 맡아 정착하고 작곡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후 리스트는 돈을 받고 하는 연주회를 하지 않았으며, 무료로 제자를 레슨하고 기부왕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자선에 힘썼다.

오늘날 아직도 세계를 휩쓰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계보가 리스트의 레슨에서 시작한다. 젊은 날의 치기어린 사랑의 결실로 마리 다구 백작부인과의 사이에 난 세 자녀 중 1859년에는 아들이 사고로 죽고, 1862년에는 큰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비극을 연달아 겪었다. (결국은 딸 코지마만 남아 나중에 바그너의 부인이 된다.) 1861년에는 13년에 걸친 공작부인과의 혼인소송도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무산되었다. 이러한 비극 속에 리스트는 바흐의 칸타타 12번 ‘울며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Weinen, Klagen, Sorgen, Zagen)’로 위로를 받았고, 그 중 제2곡 ‘합창’의 모티브로 피아노 변주곡을 작곡하였다(LW. A.188). 바흐는 12차례 우울하게 뛰는 맥박의 느낌을 주고자 반음계 저음에 4분음표 6개를 넣어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마치 하느님의 숨결과도 같은 플루트 소리가 다채로운 현에 더해지고 있다. 리스트는 이 느낌을 애통과 눈물 속에 담아내었다.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Weinen, Klagen... - Cantatas Cantatas BWV 12 "Weinen, Klagen, Sorgen, Zagen", 38 "Aus tiefer Not schrei ich zu dir" & 75 "Die Elenden sollen essen"**  
 Carolyn Sampson - Soprano  
 Daniel Taylor - Contralto  
 Mark Padmore - Tenor  
 Peter Kooy - Bass  
 Collegium Vocale Gent  
 Philippe Herreweghe - Conductor  
 Release Date: March 8, 2005  
 Duration: 1h 9mn 9s  
 Label: Harmonia Mundi  
 Catalogue No.: HMC901843

어느 누가 연주해도 리스트의 애통함이 느껴지지만, 특히, 러시아 혁명기 스탈린 치하의 여류 피아니스트 **마리아 유디나(Maria Yudina)**의 연주에는 그 슬픔의 서정이 배가된다. 잔혹한 스탈린의 공포정치 속에서 유디나는 연주회 도중 금서였던 파스테르나크의 시를 읽는 등 마땅히 숙청되어야 할 예술가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스탈린이 그녀의 모차르트 연주를 좋아하여 그래도 살아남았다. 스탈린이 라디오 방송으로 그녀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3번을 듣고 당장 그 녹음을 가져오라고 하자, 한밤중에 이미 끝난 연주회 청중을 다시 모으고 단원들을 다시 불러 밤새 녹음하여 다음 날 대령하였다는 일화는 아직도 유명하다. 스탈린이 자신의 별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을 때도 영국의 처칠이 선물한 축음기에 유디나의 모차르트 LP가 돌아가고 있었다. 강제수용소로 추방될 우려를 무릅쓰고 청중 앞에서 신앙을 지키며 저항시를 읊었지만, 늘 화장기 하나 없이 금욕적이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그 댓가로 종종 음악회 출연이 금지되고 러시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만일 그녀가 다른 망명 러시아 피아니스트처럼 서방세계에 알려졌더라면 우리는 그녀의 더 많은 연주를 듣는 호사를 누렸겠지만, 다행히 리스트의 가장 애통한 피아노 변주곡 **‘울며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의 연주가 남아, 비록 녹음은 열악하더라도 깊은 감동으로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Beethoven, Bach, Liszt, - Maria Yudina, Prelude and Fugue in A Minor**  
**Variationen über das Motiv von Bach: 'Weinen, Klagen, Sorgen, Zagen', for piano, S. 180 (LW A214)**  
 Maria Yudina  
 Release Date: February 13, 2012  
 Duration: 01:08:00  
 Label: Entertainment Group International Inc.  
 ASIN: B007WVQX6

대부호 공작부인이 수녀원에서 조출하게 생을 마감하였을 때 문서가 하나 발견되었다. 일전에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공작부인은 거의 모든 영토와 재산을 외동딸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이미 해주었기에 당시에는 몇 푼 안남은 재산이었지만, “남편 리스트에게 전 재산을 상속시킨다. 남편은 길고 깊고 감사해야 할 사랑을 내게 주었다. 교회에 나를 바치는 경건한 가톨릭 신도로서 남편이 허락한다면 로마에 묻히고 싶다. - 카롤리네 리스트”. 살아생전 마지막 문서에 그토록 원했던 ‘카롤리네 자인-비트겐슈타인’이 아닌 ‘카롤리네 리스트’라는 서명을 남긴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리스트’의 이름을 취하지 못하였지만, 영적으로 그녀는 영원히 리스트의 카롤리네였다. 이렇게 리스트의 삶은 한편의 파란만장한 드라마였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변방 국경 헝가리에서 태어나 파리로 건너가 쇼팽과 함께 화려한 살롱음악의 양대 축을 이루다가 ‘리사이틀’로 대변되는 화려한 비르투오조의 삶을 영위하며 치기어린 사랑으로 유부녀와 야반도주하여 세 자녀를 두었던 리스트였으나, 공작부인과의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며 인생의 본질적인 고독을 감지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전환하였다. 그의 음악도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어져만 갔다. 우리에게 삶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진리를 알려주는 듯...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네게브와 홍해 - 매혹적인 사막과 눈부신 바다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사해를 떠나 브에르 쉘바의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강 지역부터 지금까지 계속 광야를 만나고 있는데 본격 사막지역이 등장합니다. 이 지역에 한국 순례자들이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집트를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때 많이 지나가셨던 곳입니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하여 시나이 반도의 산을 거쳐 홍해를 지나 이스라엘을 오는 “탈출기 여정”을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모세 성인이 하느님을 만났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산을 새벽에 등정하여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코스인데,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산 후에 아카바만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이스라엘의 타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그야말로 극기훈련에 가까운 스케줄로 유명했었지요. 깡깡한 이스라엘 국경통과를 끝으로 진을 꾸욱 빼는, 오죽하면 성지순례를 가면 주님께 가는 시간이 더 가까워진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는 기쁨도 잠시,

너무나 피곤하셔서 “아라드”라는 지역까지 세 시간, 혹은 예리코까지 네 시간 정도를 줄곧 주무시면서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나이 반도는 2014년 한국 순례자들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와 같은 순례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홍해를 만나는 에일랏 도시까지 갈 수 있는 도로는 90번 도로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텔아비브, 브에르 쉘바에서 출발하는 직행 버스가 있고, 에일랏 도시가 워낙 작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가도 좋을 곳입니다.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는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브에르 쉘바에서는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꽤 먼 거리죠. 이스라엘 국내선 비행기가 오가는데 텔아비브 공항까지 편도 45분 소요됩니다. 사해호텔이 있는 에인 보케크 지역에서 출발하면 2시간 남짓 걸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따라 계속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창 밖의 풍경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황무지, 돌산, 가끔가다 보이는 키부츠 마을들. 이곳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수상인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게브지역은 우리나라의 요람이자 위험한 취약 지점이며 눈부신 미래입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웁시다.”

한 세기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끝없이 싸우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다툼이 가득한 곳이 아닌. 광활하고 건조한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더 안정적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곳은 경작이 아주 불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을 대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있기에 벤 구리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벤 구리온은 은퇴한 뒤에 그의 남은 여생을 ‘스데 보케르’ 라고 하는 네게브 지역의 키부츠에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농업과학 기술을





팀나



팀나의 성막

이곳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눈을 감습니다. 300km로 떨어진 갈릴래아 호수에서 이곳까지 물을 끌어오고 염도가 높은 사막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비닐하우스 단지를 만들고 파프리카 농장과 화훼농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시면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 감탄하시는데, 특히 토마토와 오이, 파프리카가 아주 유명합니다. 광야지역에서 이런 신선한 야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농업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스라엘 감’이라고

하는 단감은 감껍질의 짙은 맛을 없어서 감을 껍질 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닌 건조한 사막에서 돌밭을 일구고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의 맛이 더 감격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작은 영토에 그것도 58%는 광야이니,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순례객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은 기술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기 산업입니다. 잣은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인한 실전경험을 토대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과 긴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이런 네게브 사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핵발전소는 없지만 핵기술 연구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연구소 역시 네게브 사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게브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향료 대상들이 만든 도시의 유적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몇 대 불가사의하면 늘 등장하는, 이웃나라 요르단의 페트라에서 출발

하여 가자 항구까지 가는 길에 쉬어가며 만든 여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지요. 맘쉬트, 아브닷, 쉬브타, 할루짜 이렇게 네군데가 대표적이는데, 아브닷은 벤 구리온의 무덤이 있는 스테 보케르 키부츠와 가깝기에 한번 가볼만 한 곳입니다. 이곳은 브에르 쉘바에서 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몰약, 향유를 비롯하여 후추 등의 향신료들이 이 대상들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네게브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또 말씀드리다면, 그곳은 ‘마크테쉬’라는 곳입니다. 땅이 퇴적과 풍기, 침식을 반복해서 고대의 땅이 크게 노출이 된 지역인데, 이곳에 가면 주라



마크테쉬라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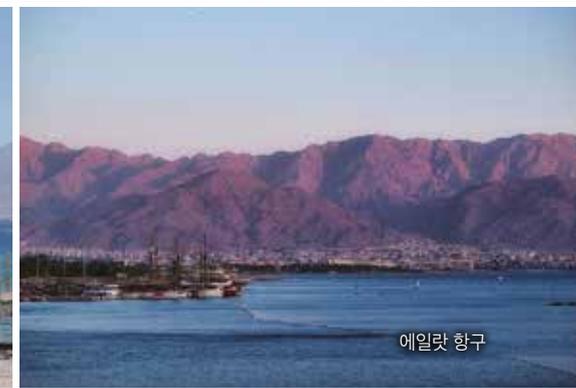
에일랏 도시



에일랏 펍



홍해



에일랏 항구

기 시대의 땅을 밟아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한 처음에”로 시작되는 창세기를 묵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지역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역이지만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세 군데가 유명한데 그중에 제일 큰 곳이 미츠페 라몬입니다. 길이 40km, 너비 10km 깊이, 400m의 폭 꺼진 세계에서 가장 큰 침식 분화구를 보면, 지구의 모습이기 보다는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작디작은 이스라엘 땅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게브 지역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팀나’라

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 지었던 성막의 모형이 있고, 구리채취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탈출기에 등장하는 구리로 만든 뱀이 떠오릅니다.

바야흐로 에일랏에 도착하였습니다. 붉은색의 사암산맥을 배경으로 푸르른 홍해가 보입니다. 홍해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의 성지라고 하지요. 무릎까지 오는 깊이의 물속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1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곳이기에

연중 내내 다이빙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바닷가가 끈끈한 바닷바람이 부는데 이곳은 사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면세 구역이어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낮에는 카페였다가 밤에 펍으로 바뀌는 유명한 식당들도 있습니다. 더운 밤 낭만을 즐기며 칵테일 한잔 또는 맥주 한잔에 기분 좋게 춤을 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름다운 휴양지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요르단과 이집트를 오갈 수 있는 국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요르단 국경으로 넘어가면 ‘와디 럼’이라고 하는 붉은 사막과 페트라가 멀지 않아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이집트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는 타바 국경을 넘어서 다합을 다녀오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곳은 дай버들의 천국이라고 하지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이 중단된지도 어느새 일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보내기에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다시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혼란이 가득한 곳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인생의 낭만과 젊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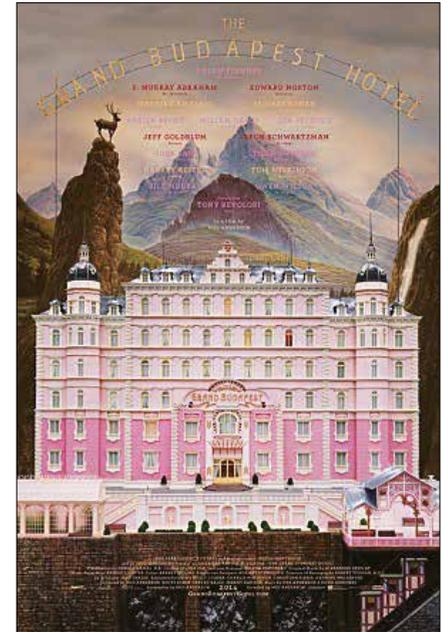
## 『어제의 세계』(2) -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과 『어제의 세계』

최대환 신부\_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 시대의 ‘무례함’ 앞에서 고뇌하며

뛰어난 문학작품들이 시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무례함’에 대한 생생한 인식과 성찰입니다. 섬세한 문학적 감수성과 통찰력은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그냥 못 본 척 넘기고 싶어하는 일상에 깃든 무례함의 관습들에 이름과 형태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중요한 것은, 덮어두거나 쉽게 용인되는 무례함은 반복되고 증폭되면서 특히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더해 주고, 사회적 차원의 폭력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액체 근대’ 개념으로 잘 알려진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1925-2017)의 철학 에세이들인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오윤성 옮김, 동녘, 2019-개정판-)이나 『이것은 일기가 아니다』(이택광 외 옮김, 자음과 모음, 2013) 등을 보면 현대사회에서 무례함은 스쳐가는 일상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심저(心底)와 한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자라나는 병리적 혐오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그래서 진지한 사회 철학적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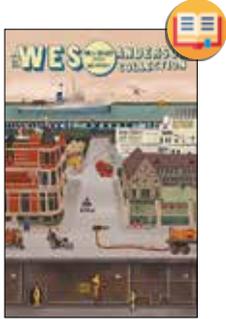
누구보다도 섬세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었던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에서도 ‘무례함’에 대한 경고가 문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어제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삶의 여정과 관련하여 교양과 시민적 양식과 예술적, 학문적 창조성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무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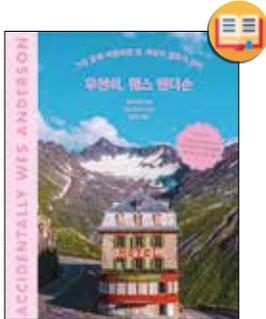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 / The Grand Budapest Hotel / 2014  
감독\_ 웨스 앤더슨  
미스터리, 모험 / 독일, 영국 / 100분

함과 폭력과 혐오와 전쟁의 시기로 옮겨가는 동시대의 비극을 절절하고 비통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츠바이크의 작품에서 보게 되는 무례함으로 경도되는 시대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과 성찰의 힘은 당대의 독자들에게 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가칩니다. 이를 잘 포착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슈테판 츠바이크의 문학정신을 알리는데 기여한 뛰어난 영화가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The Grand Budapest Hotel, 2014)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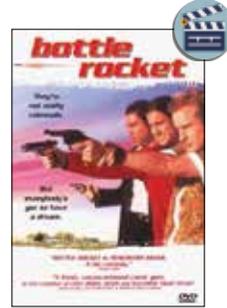
1969년에 태어난 미국의 감독 웨스 앤더슨(Wes Anderson)은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경력에 어울리게 건조하고 예리한 유머와 풍자와 함께, 인생사에 대한 날카로운 철학적 통찰을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탁월하고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색감과 디자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영화들에 관한 ‘아트북’인 『웨스 앤더슨 컬렉션』(월북, 2017)이 출간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그의 영화에 어울릴 만한 전 세계의 명소들을 독자들이 인터넷에 사진으로 올린 작품들을 모은 『우연히, 웨스 앤더슨』(웅진 지식하우스, 2021)이라는 책이 출간될 정도로 감각적 탁월함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향수를 자아내는 시각적 매력이 그의 영화에는 가득합니다. 웨스 앤더슨은 자신의 영화를 철학적인 토론의 소재이자 진지한 영화비평의 분석 대상이 되게 하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역량과 함께, ‘인스타그램’ 시대에 가장 인기있는 ‘힙스터’로서 인정받는 독특한 위상을 누리는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90년대에 내놓아 그를 주목받게 한 데뷔작인 <바틀 로켓>에서 시작하여, 그의 이름을 알리게 했으며 그의 영화하면 떠오르게 하는 개성적 서사와 유머감각이 드러난 <막스군, 사랑에 빠지다>와 본격적으로 웨스 앤더슨이 영화적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로얄 텐넨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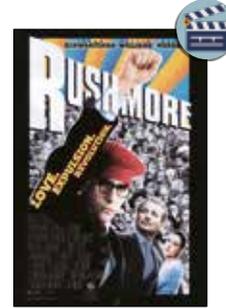
웨스 앤더슨 컬렉션  
The Wes Anderson Collection  
웨스 앤더슨, 매트 줄러 세이츠 지음  
조동섭 옮김 | 막스 달튼 그림 | 월북  
2017. 04



우연히, 웨스 앤더슨  
Accidentally Wes Anderson  
윌리 코발 지음  
김희진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2021. 03



바틀 로켓  
Bottle Rocket 1996  
미국 | 코미디, 범죄



막스군 사랑에 빠지다  
Rushmore, 1998  
미국 | 멜로, 로맨스, 코미디



판타스틱 Mr. 폭스  
Fantastic Mr. Fox, 2009  
미국, 영국 | 애니메이션,  
모험, 코미디, 가족



문라이즈 킹덤  
Moonrise Kingdom, 2012  
미국 | 드라마, 코미디, 모험



로얄 텐넨바움  
The Royal Tenenbaums, 2001  
미국 | 코미디, 드라마

을 거쳐, 많은 열성팬을 낳게된 로알드 달의 원작에 바탕을 둔 매혹적인 애니메이션인 <환타스틱 미스터 폭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그를 거장으로 인정 받게 한 두 편의 작품인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이르기까지, 웨스 앤더슨의 영화적 여정을 본다면 그를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화작가’로 평가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휴머니즘과 인류애의 이상을 우리 시대의 정서와 감각에 입각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철학적, 사상적, 윤리적 진지함이 시각적, 음악적인 참신성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윤리적, 철학적 성숙성은 무엇보다 웨스 앤더슨이 슈테판 츠바이크의 작품에서 받은 영향과 영감에 공감하고 영화예술 안에 잘 구현한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 슈테판 츠바이크가 주는 윤리적 영감

이 작품은 유럽 중부의 가상국가가 무대이지만, 여러 가지로 슈테판 츠바이크가 살았던 오스트리아와 주변국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슈테판 츠바이크가 평생 문학과 삶에서 저항하였던 무례함, 전체주의, 폭력성 등에 대한 고민과 평화와 생의 즐거움에 대한 찬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의 마음을 저미는 설정들은 츠바이크 본인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비극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화는 슈테판 츠바이크에게 영감을 받아 어찌면 우리 시대에도 점증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무례함에 대하여 예술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의 슈테판 츠바이크에 대한 헌사라고도 하겠습니다.

웨스 앤더슨이 슈테판 츠바이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작은 독서광이었던 그가 젊은 시절 우연히 읽게 된 츠바이크의 짧은 소설인 <연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라는 성경 구절의 진실을 작가라면 다 알고 있으며, ‘무릇 많이 말한 자는 더 많이 들어 풍족하게 되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작가의 상상력이 늘 잘 돌아가고 작가가 사건과 스토리를 끝없이 계속 지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잘못된 생각은 없다.

사실, 작가는 스토리를 지어내지 않아도 된다. 인물과 사건이 제 발로 작가를 찾아오도록 두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작가가 보고 듣는 능력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인물과 사건은 자신을 전해줄 사람을 찾아올 것이다. 무릇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려 많이 애쓰는 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 앞으로 이어질, 여기 적힌 사건들은 내가 들은 바 거의 그대로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다.”

이에 반해 이 영화에서 『어제의 세계』는 직접적으로 인용되기 보다는 영화의 서사적 형태, 그 주제, 기본 정서를 보이지 않게 규정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영화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라 할 매트 졸러 세이츠의 『웨스 앤더슨 컬렉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월북, 2016)에 실린 웨스 앤더슨과의 인터뷰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비극적 세계관과 비탄의 정서, 그럼에도 숨기지 못하는 창조성과 재기 발랄함, 위트,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한 사랑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 시대에 어울리면서도 윤리적 보편성을 지닌 감동적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영화에 대한 매트 졸러 세이츠의 책에서 서문을 영화평론가 앤 워시번이 쓰고 있는데, 그녀가 다음과 같이 『어제의 세계』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조부모 세대는 훨씬 좋았다. 그들은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깔끔한 일직선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부러운가? 잘 모르겠다. 그들은 진짜 고통에서, 악의와 운명의 힘에서 멀리 떨어져 꾸벅꾸벅 조는 듯 삶을 살았지만 (...) 우리 (...) 편안함이 낡은 신화가 되고, 안전은 유치한 꿈이 된 우리는 우리 존재의 하나부터 열까지 긴장을 느끼고 있고, 무엇에 대한 공포를 늘 새롭게 신경마다 느껴야 한다. 우리 삶의 매 시간은 세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비탄으로 또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의 작은 삶 저 너머의 역사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 너머의 것은 아무 것도 몰랐다. (...)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가장 어린 인류라도, 우리 선조의 가장 현명한 사람보다 현실에 대해 천 배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 대가를 완전히 치렀다.”

### 티나씨의 티비보기

## 세월의 지혜, 존엄한 노년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올해부터 세계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제안에 따라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 주일’로 지낸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 기념일(7월 26일)과 가까운 주일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노인들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이다.

유행이 급변하고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에서 늙음은 도태와 동의어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노인들의 학력과 지식, 문화생활 경험치가 이전보다 향상되면서 그들도 자기표현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노인들을 보는 아래 세대의 시각도 서서히 변했다. 급변하는 세월을 이겨내고 부단한 노력과 용기로 경륜을 쌓아 온 이들을 경외하는 정서가 생겨났다.

21세기 들어 대중매체가 노인들을 묘사하는 방식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노인들의 일상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전환시킨 대표 작품으로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

다’(2007년)를 들 수 있다. 빈곤과 질병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노인들의 애뜻한 연애담은 연극과 영화로도 리메이크되었다. 백년해로한 노부부의 사별을 묘사한 다큐 영화 ‘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오’(2014년)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어져, 넷플릭스의 연작 다큐 ‘님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2021년)를 탄생시켰다.

TV 연속극의 완고한 재벌 회장님이나 시부모 정도로 묘사되던 노배우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006년), ‘청담동 살아요’(2011년)는 이순재와 김혜자에게 코미디 연기를 주문했고, 여행 예능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2013년)는 낯선 나라에 던져진 노배우들의 인간적인 매력을 발굴했다.

예능으로 촉발된 노배우들에 대한 찬사는 노배우가 주인공인 드라마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노배우들의 집단 주연작 ‘디어 마이 프렌즈’(2016년), 노배우가 단독 주연인 ‘눈이 부시게’(2019년), ‘나빌레라’(2021년) 등이 그러하다. 뒤의 두 작품은 아래 세대의 사람

들이 노년기와 관련해 가장 두려워하는 소재인 치매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질곡의 세월을 견디며 지나온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존엄한 노년’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발레를 소재로 한 ‘나빌레라’는 원작 웹툰과 리메이크 뮤지컬에서 70대 노인이 날렵한 체형으로 묘사된 것과는 달리, 평범한 노인의 체형을 가진 실제 70대 배우 박인환이 고강도의 훈련을 감내하며 출연함으로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옛 광고 카피와 같은 도전의 미덕을 생생하게 환기했다. 그가 무딘 동작으로나마 일생일대의 발레 공연을 마치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커튼콜을 받는 마지막 회의 장면은, 동어반복적인 여러 연속극들에서 융통성 없고 평면적인 시아버지 역할을 오랫동안 견뎌 온 배우의 성실함과 인내에 대한 헌정과는 같았다.

노인들에 대한 TV 카메라의 집중 조명은 처음에는 시트콤에서처럼 새로운 인물형을 찾는 틈새 전략으로 출발했던 듯하다. 그러나

경륜과 도전정신을 간직한 노년의 방송인들이 새로운 기획안과 만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근래의 작품들은 ‘곤대’ 담론으로 대표되는 세대 갈등에 현명한 대안이 되고 있다. 본업에서 일가를 이루었어도 아래 세대와의 소통을 마다하지 않는 노인들의 이상적인 본보기로는, 유창한 영어와 유머 감각을 갖춘 ‘윤스테이’의 윤여정, 젊은 방송인들에게 “저건 갑질이지요”라는 지적을 감수하며 대화하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장인들을 들 수 있다.

아무리 건강관리에 매달려도 늙음은 피할 수 없다. 대중매체도 그전보다 비중이 높아진 고연령층의 욕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TV에서 멋진 ‘현역’ 노인들을 많이 발굴하는 노력이 한편으로는 빈곤하고 병든 노인들을 자기관리의 실패자인 양 비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발굴된 모델들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존엄한 노년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

### 성미술 이야기

## 성스러움과 신비로움 속으로

정용모 신부,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작년처럼 올여름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낸다. 그나마 올해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여전히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기에 사람들은 국내의 정경이 좋은 곳을 찾아서 여름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했어도 여전히 학교에서 공부하며 취업 준비를 한다. 가톨릭대학교의 도서관과 여러 건물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연마하며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부천의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는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신축된 김수환관에는 언제나 학생들로 붐빈다.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건물 곳곳에서 성화를 만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정문 부근, 김수환관 로비 1, 2층 벽에는 성화 세 점이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구원의 역사가 담긴 이 작품은 **변진의(1941~)** 작가의 신작으로 들뜬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그림 속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가르침이 되고 위로가 된다.

화가는 <환희의 신비>와 <빛의 신비> 그리고 <고통의 신비>를 연작으로 그렸다. 세 그림의 주제는 각각 다르지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작이라고 할 수 있다.

<환희의 신비>에서는 성탄에 초점을 맞추어 목자와 천사, 예물을 들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 |   |   |
|---|---|
| 1 | 3 |
| 2 | 4 |

- ① 변진의(1941~), <환희의 신비>, 3×4m, 캔버스에 유채, 202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김수환관, 부천.
- ② 변진의(1941~), <빛의 신비>, 3×4m, 캔버스에 유채, 202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김수환관, 부천.
- ③ 변진의(1941~), <고통의 신비>, 3×4m, 캔버스에 유채, 202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김수환관, 부천.
- ④ 변진의 작가 작품이 걸린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김수환관 로비 전경

그렸다. 또한 주변에는 성탄과 관련된 일화를 장식처럼 표현하여 주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는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 성모영보, 성가족의 이집트 피신, 아기들의 대 학살, 예수님 탄생에 담긴 수난 예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볼 수 있다.

<빛의 신비>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축복해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서 주요 장면을 보여준다. 주변에는 예수님의 세례, 가나의 혼인 잔치, 최후의 만찬, 거룩한 변모를 표현하였다.

<고통의 신비>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아래에 있는 성모 마리아, 요한 제자를 표현했다. 주변에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갖는 구세사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게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죽었던 나자로의 살려주심, 피에타, 천국의 열쇠를 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예수님 수난에 대한 예언서를 들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세 폭의 커다란 그림은 사람들에게 성스러움과 함께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그것은 사실적인 인체 묘사가 아니라 길쭉하게 표현하여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작가는 깊고 짙은 푸른색과 황금색을 사용하여 신비로운 신앙의 세계를 한층 잘 보여준다.

성화가 걸린 곳이 학생들을 위한 건물이지만, 이 작품은 마치 성당에 걸려있는 세 폭의 제단화 처럼 거룩한 분위기를 풍긴다. 학생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성화를 볼 것이다. 세 폭의 성화는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천상의 세계에 대해 말없이 가르쳐 준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

어쩌면 우주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문과 책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처럼, 세 폭의 성화도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 줄 것이다. 🙏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 단체 후원: [서울교통공사](#)
- \* 개인 후원: [유지선](#), [신석환](#), [애정희](#)

## 2021년 견진성사

6월 20일(주일), 13:30 명동대성당에서 손희송 베네딕토 총대리 주교님의 주례로 총 31분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우회명	KOTRA	SC 제일은행	국민 건강공단	국회	서대문구청	시티은행	예금보험공사	총 / 31명
인원	1	6	1	4	1	4	1	
교우회명	용산구청	제주항공	중랑구청	청와대	한국은행	개인신청	-	
인원	2	2	1	2	3	3	-	

##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愛 동행'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행을 청합니다.

###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기간	8월 15일(일) ~ 9월 26일(일)
참여방법	① 성지 및 순례지(11곳) 및 온라인(홈페이지) 에서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탬프 찍기 ③ 9월 26일(일) '순교자성월을 담은 미사'에 참여하여, 완주 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 순례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 기금으로 사용
행사문의	천주교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02-2269-0413 / www.martyrs.or.kr

#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명동밥집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상징인 '명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 명동밥집 후원하기

**후원방법1. QR코드 후원하기**  
(우측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면 후원링크로 연결됩니다)



**후원방법2. 무통장 송금하기**

명동밥집 후원계좌	예금주
무료급식 지원 : 우리)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미농민공동운동본부
자활사업 지원 : 우리) 1005-304-138483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이종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 성향으로 발급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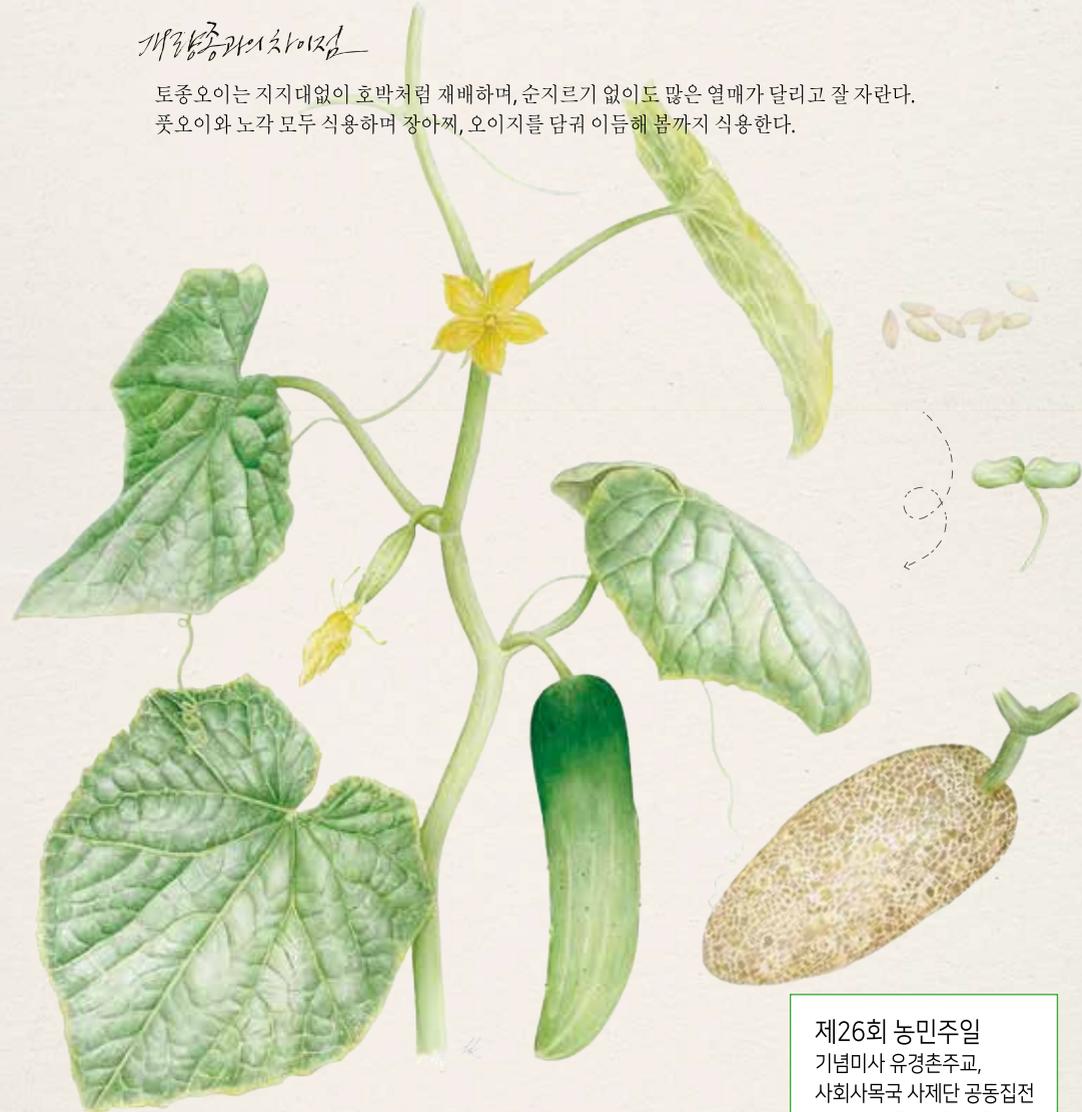
후원신청 및 문의 | 02-774-3488 | www.mdbj.or.kr

# 제주오이 (Jeju Cucumber)

토종오이인 제주오이는 제주물외라고도 하는데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씨앗을 직파해(모종의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정식) 서리 내리기 전까지 수확해 개량종보다 늦게까지 수확한다. 내륙의 토종오이(강화오이, 입실오이, 청주오이)보다 가운데가 통통하고 꼭지가 잘록한 특징이 있다.

### 개량종과의 차이점

토종오이는 지지대없이 호박처럼 재배하며, 순지르기 없이도 많은 열매가 달리고 잘 자란다. 풋오이와 노각 모두 식용하며 장아찌, 오이지를 담궈 이듬해 불까지 식용한다.



제26회 농민주일 기념미사 유경춘주교, 사회사목국 사제단 공동집전 2021년 7월 18일(주일) 명동대성당 12시



### Ciborium

a receptacle shaped like a shrine or a cup with an arched cover, used in the Christian Church to hold the Eucharist.

※ *Origin of Ciborium* : mid 16th century : via medieval Latin from Greek kibōrion 'seed vessel of the water lily or a cup made from it'. ciborium is probably influenced by Latin cibus 'food'.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